

일별 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예측을 통한 대국민 알림 서비스

참 가 번 호 220168 팀 명 입·	호	220168	팀 명	입상
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	----

1. 공모 배경

□ 한국인 사망원인 2위, 심혈관질환

○ 통계청에서 2020년에 발표한 『한국인 사망원인 통계』에 의하면 심혈관 질환이 암 에 이어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함 1)



- 뇌혈관질환의 경우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.

(단위: 인구 10만 명당 명, %) 순환계통 고혈압성 심장 질환 뇌혈관 허 형 성 ΕP 심장 질환 심장 질환 남녀 2010년 112.5 9.6 46.9 26.7 전체 2019년 1174 11.0 60.4 26.7 33.8 42.0 2020년 121.1 11.9 63.0 27.4 35.6 42.6 '19년 증 3.8 0.9 2.6 0.7 1.9 0.5 대비 증감률 8.3 4.2 2.6 1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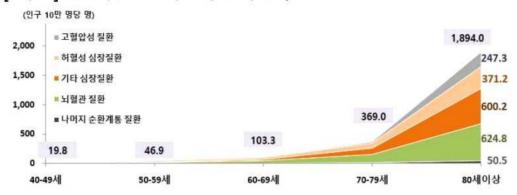
[표 8] 순환계통 질환의 성별 사망률 추이, 2010-2020

-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의 추이를 보면 순환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- 혈관질환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사전에 혈관질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발병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혈관질환의 발생을 방지해 야 함.
-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순환계통 질환의 사망률이 높아짐.
-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6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순환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.
-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혈관질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

¹⁾ 출처: 통계청 『한국인 사망원인 통계, 2021』

에 발병위험도 및 행동 수칙을 안내함으로써 혈관질환 발병을 방지해야 함

[그림 7] 순환계통 질환의 연령별 사망률, 2020



2. 분석 데이터 정의

□ 데이터 정의

- 기상 변수
- 일별 기상 데이터와 다음 날의 기상에 대한 예보 데이터로 구성됨.
 - 예) 2012년 1월 1일의 경우 2012년 1월 1일의 기상 데이터와 2012년 1월 2일의 기상에 대한 예보 데이터로 구성됨.
- 인구통계학적 변수
- 지역별, 연도별 노인인구 수, 전체인구 수 및 1인당 평균 소득 데이터를 변수로 사용함.

□ 파생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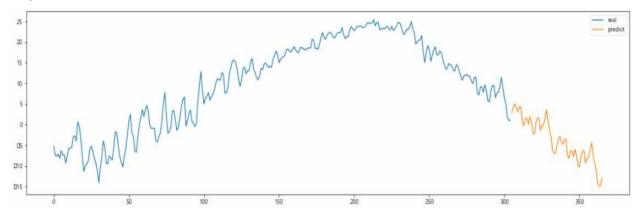
- 기상 변수
- 일교차를 계산한 후 해당 일자의 최저기온이 낮으면 더 큰 값을 갖도록 최저기온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값을 곱해서 사용함.
 - (가중치를고려한일교차) = (최고기온 최저기온) × $\frac{1}{(1+e^{^{rak{d}}$ 지인/20})}
 - 예) 일교차가 -10℃일 때, 최저기온이 10℃인 경우 5.8257, 최저기온이 10℃인 경우 4.1743의 값을 가짐.
 - 체감기온 변수 및 대기 오염도의 지연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예측일 기준 1일 전, 2일 전, 3, 7, 10일 전의 PM10, 오존 농도 변수를 생성함.
 - 기타 변수
 - 연도별 공휴일 목록을 구성한 후, 해당 날짜의 평균 발병 빈도가 전체 데이터의 발병 빈도 의 평균보다 10% 이상 높은 경우만 공휴일 변수로 사용함.
 - 연, 월, 일, 요일, 주말 변수 생성
 - 지역별 혈관질환 발병의 양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총인구 대비 발병 빈도의 비율에 따라 4가지의 집단으로 분류함.

3. 활용 분석기법 및 모델링 결과

□ 데이터 전처리



- 예보 데이터 결측 처리
- 예측 모형에서 예보 데이터는 일 최고기온, 일 최저기온, 습도를 사용함.
- 2012년 11월, 12월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예보 데이터가 결측 데이터임.
- 시계열 모형인 SARIMAX 모형을 통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추세로부터 11월, 12월의 값을 예측한 후 사용함.
- 예) 충청북도 지역의 최저기온 예측 결과



- PM10, O3 데이터 결측 처리
- 인접한 지역에서 대기질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인접한 지역의 값으로 대체함.

□ 반응변수 변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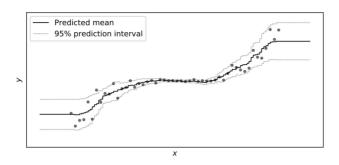
- 일자별 혈관질환 발병 빈도는 전날의 기상 변수를 통해 예측
- 전날의 기상 변수와 전날 발표된 기상예보 데이터를 통해 해당 일자의 발병 빈도를 예측함. 이는 서비스 측면에서 일자별 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전날에 예측하여 사전에 안내하기 위 함임.
- 예) 2012년 1월 2일의 발병위험도는 2012년 1월 1일 23시에 예측한 후 안내 대상자들에게 알림 서비스로 전송됨.
- 혈관질환 발병 빈도 대신 총인구 100만 명당 발병 빈도로 변환
- 발병 빈도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총인구 수에 큰 영향을 받게 됨.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병 비율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변경함. 이렇게 함으로써 총인구수와 관계없이 발병 비율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함.
- 최종 예측값 계산 시에 예측된 발병 비율에 총인구수를 곱한 값을 제출했으며, 실제 서비스 에서는 예측된 발병 비율을 이용함.

□ 모형 학습 및 모델링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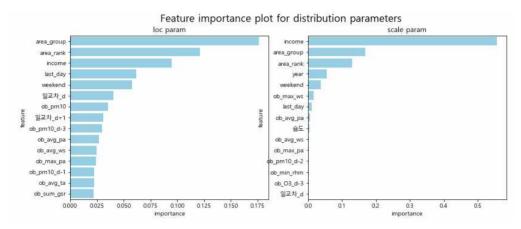
- 결측 처리
 - 가장 가까운 관측치로 결측치를 채우는 최근접 이웃(KNN) Imputation 기법을 사용함.
- 최종 모형
- 일별 환자 수는 모든 기상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우연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, 확률적 예측을 수행하는 NGBoost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함.



- NGBoost의 예측 방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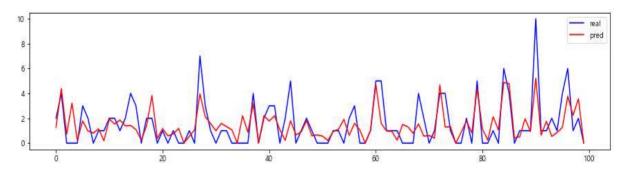
○ 변수 중요도



- 예측값의 확률분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을 집단별로 묶은 변수, 노인인구 발병비율의 순위, 지역별 경제 수준, 주말 등의 변수의 중요도가 높게 측정됐으며 기상 변수의 경우는 예측일과 예측 대상이 되는 날의 일교차, 습도 및 예측일의 일 최고기압등의 중요도가 높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음.
- 대기 오염도의 경우 예측일과 예측일 기준 1일 전, 3일 전의 pm10 농도도 발병 위험도 예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.
- 일별 발병빈도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기상 변수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 단되며, 예측 대상일의 일교차에서 발병 위험도와의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했음.

○ 예측 결과

- validation set에 대한 RMSE는 1.2085로 계산되었으며 sampling 과정에서 random seed 에 따라서 점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valid ation set에 과적합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을 수행하지 않음.
- validation set에서 임의로 선택한 100개의 관측치에 대한 실제값과 예측값





4. 서비스 활용 방안

□ 대국민 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알림 서비스

- 매일 23시마다 다음 날의 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계산
 - 일별 혈관질환 발생 빈도 예측 모형에서 예측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의 날씨(일 최고기온, 일 최저기온, 평균 습도)에 대한 예보 데이터를 사용했음.
 - 모형 학습에 사용된 예보 데이터는 매일 23시에 발표된 수치를 사용했으며, 해당 수치를 통해 당일의 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계산해서 자정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함.
 - 계산된 발병위험도를 아침 7시에 일괄적으로 전송함.
- 혈관질환 발병위험도 등급화
 - 혈관질환 발병위험도의 등급은 지역마다 다르게 산정하며, 연도별로 모형을 통해 예측한 전년도의 1년간의 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기준으로 함.
 - 지역마다 예측 확률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~5단계의 등급으로 안내함.
 - 예측 모형에서 변수 중요도가 높게 나온 기상 요소를 선정해서 해당 요소들의 수치를 위험도 등급과 함께 제시 후 행동 수칙을 안내함.

□ 알림 서비스 활용 매체

- 알림 서비스 안내 대상
-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.
- 특히 60세 이상 노인 및 기저질환자 등의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.
-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푸시 알림 서비스
- 이동통신사에서 알림서비스 앱을 기본 앱으로 제공함.
- 매일 23시에 다음 날의 기상예보 데이터가 확보되면 예측 모형을 통해서 다음 날의 혈관질 환 발병위험도를 계산함.
- 앱에서 당일의 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제시함.
- 매월 마지막 날이나 공휴일의 경우 발병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. 이는 과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날짜에는 과음에 대한 경고 메시지및 예방 수칙을 추가로 전송함.
- 문자 메시지
- 60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0%에 불과함.1)
- 60세 이상 인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, 해당 집단 내 스마트폰 미가 입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.
- 스마트폰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푸시 알림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병위험 도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함.
- 60세 이상 인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, 해당 집단 내 스마트폰 미가 입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.
- 스마트폰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푸시 알림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병위험 도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함.

¹⁾ 출처: 한국갤럽『스마트폰 사용률 & 브랜드, 스마트워치,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, 2021』







○ 기타 매체

- 위의 두 가지 방법은 휴대폰이라는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는 한계점을 가짐.
-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뉴스, 신문, 라디오 등의 매체에서 기상정보와 함께 발병위 험도를 안내함.
- 추가 방안
- 발병위험도가 4단계 이상인 경우 안내 대상자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함.
- 70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별 발병위험도를 알려주는 알림 팔찌를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를 방지함.

□ 실제 서비스 적용

- 성과 측정
- 알림 서비스 전·후의 일별 평균 혈관질환 발병 빈도 비교
- 서비스 구축
- 기상 데이터 및 기상예보 데이터 실시간 수집 체계 구축
- 앱 내 발병위험도 및 행동 수칙 안내 서비스 구축

□ 기대 효과

- 혈관질환 발병률 감소
 - 일별 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사전에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예방 수칙을 제안함으로써 혈관질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음.
 - 혈관질환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음.
- 혈관질환 발병 대응 체계 구축
 - 각 병원에서 관리 중인 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해서 발병위험도가 높은 날에 병원 측에서 전화와 같은 경로를 통해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혈관질환으로 인 한 사고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음.
 - 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가 높은 날에는 각 병원에서 환자 수를 예상하고 병상 확보, 의료진 확충 등의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.
- 환자 데이터 수집
 - 알림 팔찌에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혈압, 심박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혈관질환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음.
 - 알림 팔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혈관질환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

□ Reference

- 김동준(2008), 「사회경제적 수준과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」, 『Korean Journal of Medicine』, 대한내과학회, 349-357p.
- 『일교차와 건강』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, (http://hqcenter.snu.ac.kr/archiv es/jiphyunjeon/%EC%9D%BC%EA%B5%90%EC%B0%A8%EC%99%80-%EA%B1%B4%EA%B 0%95)
- 통계청『한국인 사망원인 통계, 2021』
- 한국갤럽『스마트폰 사용률 & 브랜드, 스마트워치,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, 2021』
- 김길원, 『"설 명절에 심장마비 가장 많다...'하루 60명' 최고조"』, 연합뉴스, 2020-01-22
-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(https://data.kma.go.kr/climate/windChill/selectWindChillChart.d o?pgmNo=111)
- Stanford Machine Learning Group(https://stanfordmlgroup.github.io/projects/ngboost)